

# 18세기 末 조선과 프랑스 頭髮樣式의 類似性 연구

세종대학교 가정학과

교수 임 영 자

세종대학교 가정학과

강사 구 남 옥

## 目 次

I. 緒 論

II. 理論的 背景

1. 조선의 髻髻禁制令

2. 프랑스의 大革命

III. 18세기 말 조선과 프랑스 頭髮樣式의 變化

1. 조선의 頭髮樣式

2. 프랑스의 頭髮樣式

IV. 兩國 頭髮樣式의 類似性 分析

V. 結 論

參考文獻

ABSTRACT

## I. 緒 論

복식은 한 시대상의 반영으로 그 당시의 정치·사회·경제·문화·사상 등 모든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한 나라 복식의 역사는 곧 그 나라의 역사라 보아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18세기 말, 유럽의 프랑스에서 두발양식이 혁신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것은 극동에 위치한 조선에서도 거의 같은 시기에 유사한 두발양식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당시 조선은 英·正祖 통치기로 조선의 中興期라 할만큼 강화된 왕권 하에서 정치·사회·문화면에서 매우 발전되고 안정된 사회구조를 지니고 있었고, 프랑스는 루이 16세의 통치기로서 문화적으로는 매우 세련되게 정제되어 발전하였으나 약화된

왕권과 정치·경제·사회의 불안정으로 매우 위태로운 상태였다.

이렇게 다른 역사의 발달과정을 거친 두 나라에서 유사한 시기에 발생한 조선의 髻髻禁制令과 프랑스 大革命을 기준으로 두발양식이 과장된 형태에서 축소되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본 논문을 연구하게 되었다.

지리적 여건상 두 나라의 직접적인 교류를 찾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러나, 18세기 말이란 같은 시간선상에서 두발양식과 변화의 원인과 그 유사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 범위는 시간적으로는 직접적인 계기가 된 조선의 체계금제령(1756-1764, 1788)과 프랑스 대혁명(1789)이 있었던 18세기 말 전후로 한정시켰으며, 당시 패션과 문화의 중심지였던 프랑스와 동일한 변화를 보인 조선을 대상 국가로 삼았다.

연구 방법은 조선과 프랑스의 두발양식을 비교한 선행연구가 극히 부족하여 각 나라의 두발양식에 대해 개별적으로 연구한 논문 및 서적, 실록 등의 고문서와 특히 1997년 4월 프랑스를 방문하여 수집해 온 자료 등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 II. 理論的 背景

### 1. 조선의 髻髻禁制令 (1756-1764, 1788)

高髻란 髻를 사용하여 높고 크게 틀어 올린 頭髮樣式을 의미한다. 髻는 일종의 가발로 다리, 다래, 달비, 月子, 次<sup>1)</sup> 등으로도 불리운다.

『星湖僊說』<sup>2)</sup>에 의하면 우리 나라에서는 삼국시대로부터 머리를 엮는 풍습이 있었고 이것이 고려 왕조를 거쳐 조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에 와서 高髻는 체면 중시의 유교사상과 접목되어 신분 표시와 禮로 여겨지면서 명문 세도가에서는 과시의 수단으로, 일반서민들은 상류층 모방의 풍조로 인해 여러 개의 가채로 높고 크게 만든 머리모양을 선호하여 成宗朝에는 그 크기가 사방 1尺<sup>3)</sup>이 될 정도가 되었고 사치와 풍류를 즐기던 燕山朝에 이르러서 더욱 성행되었다. 이러한 풍습은 壬辰倭亂과 丙子胡亂이라는 큰 전쟁을 거치면서도 소멸되지 않아 『孝宗實錄』에서도 “宮中高髻 四方一尺”이라는 기록을 볼 수 있다.

당시 高髻는 미의식의 표시이자 부의 상징이 되어 경제적 능력에 따라 최대한 치장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치장을 위해 가산을 탕진하는 경우도

생기고 가난한 집에서는 신부의 머리를 못 올려서 시집은 지 6·7년이 지나도록 見舅姑禮를 올리지 못하는 廢倫이 생겼으며<sup>4)</sup> 가채의 크기와 무게로 인해 생명을 잃는 등 많은 弊害가 속출하여 英祖代에 이르러 고질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18세기 말 實學思想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실학은 정치 사회적으로 모순된 현실을 개혁하기 위하여 발생하였으며, 비현실적인 儒學의 학풍에서 탈피하여 농업 중심의 이상국가를 이루려는 經世致用과 상공업 발전을 통하여 사회의 번영을 이룩하려는 利用厚生 등 신본적 차별없는 이상적 사회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실학은 현실에서 출발한 실용적 학문이므로 당시 처한 정치, 경제 사회, 역사, 지리, 자연과학, 농업 등 모든 분야가 그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종래 중국 고전 중심의 연구에서 벗어나 국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문예에 있어서도 국문 소설이 등장하였으며, 그림에서도 중국의 경치를 모방한 화풍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의 경치를 묘사한 독창적인 眞景山水畫와 風俗畫 등이 발달하였다. 이러한 實學思想의 영향으로 비현실적이고 가식적인 두발양식에 대한 비판과 각성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리하여 英祖 32년(1756) 정월에 법으로써 규제하기에 이르렀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英祖는 수차례에 걸쳐 금지령을 내렸으나 만연되었던 高髻 풍습은 왕명에 의해서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가채의 대용으로 제시한 족두리 또한 사치의 도구가 되어 英祖 39년(1764)에 다시 가채를 허용하게 되어 英祖의 髻髻禁止에 대한 개혁의지는 실패로 마감되었다.

1) 李翼, 『星湖僊說』, 卷之五, 萬物文

“次者 髮髻也”

2) 상계서

“按文獻通考 新羅婦人美髮線首 句麗髻髻垂右肩 百濟分兩道 大抵相類 而都只爲股之遺制 今俗婦女 必爲髮髻兩道線首”

3) 『成宗實錄』 卷130, 成宗 12年 辛丑 6月

“所謂城中好高髻 四方一尺者比也”

4) 『英祖實錄』, 英祖 3年 8月 乙酉; 『正祖實錄』, 正祖 12年 10月 辛卯 參照

〈표 1〉 「英祖實錄」에 나타난 髻髻禁止

年	月	日	原文	内容	비고
32 (1756)	1		禁士族婦女加髻 代以俗名簇頭里 加髻之制 始自高麗 卽蒙古之制也 時士大夫家 奢侈日盛 婦人一加髻 車取費累百金 轉相夸效 務尙高大 上禁之	上族婦女 : 가채금지 족두리 대응 금지이유 : 몽고제도, 사치	
33 (1757)	11		今之可禁者 婦女髻髻也	부녀髻髻금지	
	12		命禁中外婦女髻髻 代以後髻	부녀髻髻금지, 後髻사용	
34 (1758)	1		命禁髻髻 許以宮樣簇頭里 凡諸他 樣並嚴 禁 卷之	髻髻금지, 족두리사용	실행 안됨
38 (1762)	7	12	憲府... 又啓清 申閭家髻髻 上從之	여염집 髻髻금지	궁중 髻髻는 건소해졌으나 사가에서는 여진함
39 (1763)	11	9	命復髻髻舊制 先是 上以婦人髻髻 務奢而費多 一切禁之 代用簇頭之制 簇頭者懶也 至是諸臣 多言甚不便 上又以簇頭 與宮樣無別 而飾以珠貝 則甚費與髻同也 命復行髻制 而只禁加髻時	가채 대응인 족두리 치장 비용이 가채 값과 거의 같음 髻髻 부환	대상만 바뀌었을 뿐 사치 풍조는 변함없음 규제령 실패

英祖代에 실패한 婦女頭飾 改革政策은 그 다음  
代로 계승되어 正祖 12년(1788)에 재반포되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正祖는 금제령을 내  
리기전 대신들과 여러 차례 논의하는 등 매우 신중  
히 검토하여 선대에 비해 강하고 구체적인 規制策  
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正祖 末年인 20년 기록에 “  
加髻의 革罷는 사치를 제거하기 위함인데 單髻가  
전보다 배가 높고...<sup>5)</sup>”라고 나타나있는 것으로 보  
아 왕명에 의해 高髻의 규모는 축소되어 單髻가 되  
었지만 뿌리깊게 내려온 사치의 습속과 미의식은

변하지 않아, 單髻를 크고 풍성하게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正祖의 개혁 역시  
당대에 획기적인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였으나 형식  
적으로나마 규모가 작아진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

이상과 같이 成宗朝부터 나타난 고계의 풍습은 전  
점 크고 사치스러워져 英·正祖代에 가서는 사회문  
제화 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英祖 32년, 正祖 12년  
에 髻髻禁制令을 반포하였으나 당대에 큰 실효를 거  
두지 못하고 혼용되다가 그 다음 代인 純祖 중엽  
에 와서야 後髻로 정착<sup>6)</sup>된 것으로 추정된다.

5) 「正祖實錄」 卷之44 正祖 20年 癸未 4月

“ 加髻之罷 欲爲祛奢 而單髻倍高 ”

6)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卷15

“ 純祖中葉後通國婦女 盡廢髻髻加首 只髻已髮 橫結腦後 挿小笄 吸以成俗 ”

〈丑 2〉 「正祖實錄」에 나타난 髻髻禁止

年	月	日	原文	内容	비고
3 (1779)	2	25	實無可以代髻者 故不敢指的覆髻 上曰 備賢所達 寔出祛奢崇儉之意 然必得基永久可行之制 然後髻髻可禁 雖以花冠爲言 而如又以珠玉金具加飾 則基費反過於髻髻… 予於登極後 先從宮中 痛加禁斷 昔之以髮者 代之以木 比假髻之制 而宮樣不可用於外間 花冠亦品服也 亦不可并用於不賤	체계금지에 대한 논의 : 髻의 대응품이 없음 宮: 髻 대신 나무사용 (띠구지) 花冠: 사치하던 대응효과 없음 品服이므로 천민과 병용할 수 없음	체계를 머리 카락 대신 나무로 만들어 사용(띠구지)
	4	6	上曰 天下事 先治基本 然後末流之弊可正 近日修風漸盛 不特髻髻一事 若使在朝之臣 皆能克戒侈習 專尙節儉 則髻髻等事 不期禁而自禁 且既禁髻髻之後 當用花冠之制 而飾以株翠基費殆過於髻髻 尙爾越趨者 此也	체계금지에 대한 논의	
	9	8	亮行曰 雖用髻髻 禁基太侈 使不得過費 則此雖下策 而亦無妨矣 亮行曰 民生困悴 專由於侈風之漸盛 而已成痼弊 有難猝變第自上躬 先爲道率 以大禹之非衣惡食 衛文之大布大帛爲心 則庶有權感之效… 上曰… 當禁之	체계금지에 대한 논의	
12 (1788)	8		備邊司以右通禮禹禎圭鍊陳册子覆奏 一 婦人首飾便痛事… 惟婦女首飾 未幾有去髻之命	체계금지 명함	여러차례 논의로 매우 신중을 기함
	10	3	復加髻之禁 教曰 加髻之禁 一言而蔽之曰 亟可復也… 令行日子 京師限以陽復日 諸道限以關到後二十日… 典則已完 期日月定 令後不從者 家長坐罰 卽有司存焉 備邊司進加髻申禁節目… 一 士族妻妾閭巷婦女 凡係編髮加首 本髮加首之制 一切禁止 一 代髻之式 娘子雙髻系系陽髻 係是嫁前之制 不可用之 以編髮後髻代之 頭上所戴則依前用簇頭里 毋論綿絮涼竹 皆以黑色外裝 一 今此禁制 寔出於祛奢之聖意 諺以代用簇頭里 如七寶之類 如前飾用則有改制之名 無昭儉之實也 凡係首飾金玉珠貝及眞珠唐糸介眞珠套心之屬一并禁斷 一 於由味巨頭味 係是命婦當時所着 人家謙婦所用 勿爲禁斷 一 簇頭里所飾 旣載禁條 則婚家時所用七寶簇頭里 給賁出賁 先爲禁斷 今後冒犯者 毋論首母女僧 并移法司 照律定配… 一 常賤女人 街上露面之類及公私賤并許令以本髮加首 而貼髻加髻之制 各別禁斷 各宮房水賜里醫女針線婢各營邑女妓 則本髮加首之上 戴以加里个 以示區別威之意…	가체금지 부활 :여기는 경우 가장 인화 처벌 加髻申禁節目 1. 編髮後髻, 족두리 사용 2. 수식에 金玉珠貝, 眞珠唐糸介, 眞珠套心 붙이는 것 금지 3. 於由味, 巨頭味の 민가 혼례시 사용 금단 안함 4. 혼인시 칠보족두리 세 얻는것 금지 5. 상천여인, 공사전은 本髮加首, 가체금지 6. 궁방의 무수리, 의녀, 침선비, 기생은 本髮加首 위에 가리마 착용	체벌안이 마련된 강력한 금제조치

## 2. 프랑스의 大革命 (Révolution Française, 1789)

1789년에 일어난 프랑스 대혁명은 프랑스 인민이 시민계급을 선두로 절대왕권 하의 구체제(Acien Régime)를 타파하고 자유와 평등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싸운 투쟁이다.<sup>7)</sup>

혁명 이전의 프랑스는 태양왕 루이 14세부터 강화되어 온 절대왕권 하에 제 1신분인 성직자, 제 2신분인 귀족, 제 3신분인 평민으로 구성된 계급주의 사회였다.<sup>8)</sup> 전체 인구의 0.2%의 성직자와 0.6%의 귀족층에서 전체 토지의 30%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각종 세금을 면세 받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과세권을 갖고 있었다.<sup>9)</sup> 평민 중에서도 차등이 있었다. 세금징수원, 은행가, 무역 대상업 등의 부르조아즈는 오히려 재력으로는 귀족을 압도하였으며 가난한 귀족과 결혼을 통해 신분상승을 도모하고 돈으로 관직을 사서 정치적 권력을 획득하고자 하였다. 반면 전 인구의 80%를 차지하고 있던 농민과 노동자들은 납세와 부역 부담의 증가로 생활이 점점 어려워져 불만의 소리가 점차 커져갔다.

또한 루이 14세의 잦은 침략전쟁과 베르사이유 궁전의 건축으로 말미암은 국가 재정의 위기는 루이 16세에 이르러 무능한 왕과 사치한 왕비 마리 앙뜨와네트의 낭비스러운 생활로 파산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루이 16세는 1774년부터 튀르고(Turgot), 네케르(Necker) 등을 등용하여 내정개혁을 시도하였으나, 귀족과 성직자들의 반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더욱이 1789년의 흉작에 의한 곡물의騰貴와 國庫의 支拂停止에 의한 恐慌으로 인해 국가 경제는 수습할 수 없는 혼란에 빠졌고, 왕은 드디어 최후의

수단으로 三部會議(Etats généraux)를 소집하였다.

1614년 이래 단 한번도 소집된 적이 없던 三部會議은 1789년 5월 베르사이유 궁전에서 소집되었다. 그러나 제 1, 2신분은 부별회의를, 제 3신분은 합동회의를 주장하는 등 의결방법 문제로 대립이 일어나자, 이에 제 3신분과 일부 귀족, 성직자들이 三部會議에서 분리하여 자칭 國民會議(Assemblée Nationale)를 결성하고 6월 13일 테니스 코트에 모여 憲法制定을 주장하였다. 마침내 루이 16세도 국민회의를 인정하자 명칭을 憲法制定會(Assemblée Constitution)로 개칭하여 憲法制定과 制度改革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루이 16세가 네케르를 사임시킨 후 군대를 집결시키자 국민회의도 해산시킬 지 모른다는 루머가 돌면서 전국적으로 소요와 폭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7월 14일 시민과 혁명에 가담한 일부의 정규병들이 15세기 말 이래로 정치범을 감금하므로 전제정치의 상징이 되었던 바스티유감옥을 파괴하여 혁명은 본격화되었다.<sup>10)</sup> 이 사건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농민들도 봉기하여 폭동, 방화, 약탈, 살인 등이 자행되는 大恐怖(Grande peur)가 닥쳐왔다. 그러자 의회에서는 8월 26일, 라페예트(La Fayette)가 기초한 人權宣言(인간의 시민의 諸權利의 宣言,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iyen)을 가결하고 인간의 자유, 평등, 국민주권, 법 앞의 평등, 사상의 자유, 과세의 평등, 소유권의 설정, 등 新질서의 기본적 계원칙을 명시하여 혁명의 정의를 국내외에 宣揚<sup>11)</sup>하였는데, 이것은 당시 사상을 지배하였던 啓蒙主義(Enlightenment)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계몽주의는 17·8세기 유럽에서 비롯된 이성에 의한 증세적·봉건적 迷妄의 극복과 절대주의의 비판을 지향하는 사상<sup>12)</sup>으로 칸트가 「계몽사상이

7) 조좌호, 「세계문화사」, 서울:박영사, 1990, p.422

8) 상계서

9) 한용희, 「혁명의 이론과 역사」, 서울:대왕사, 1985, pp.215-216

10) 상계서, p.224

11) 동아대백과사전, 서울:동아출판사, 1985, p.159

12) 상계서, p 569

란 무엇인가」(1784)를 저술한 후부터 사상사의 용어가 되었다. 이것은 성숙단계에 있는 시민계급을 바탕으로 하여 자연과 이성을 내세우면서 권위·전통·기성종교를 부정하고 봉건사회에 대체되는 새로운 이성적 시민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구상하였다.

人權宣言 후에도 사정은 진정되지 않았다. 오랜 불황으로 굶주림에 지친 부녀자들이 '빵을 달라.'며 베르사이유 궁으로 진격해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와네트를 파리로 끌고 왔다. 이로 인해 약해진 왕의 권위는 1791년 6월 파리 탈출 실패와 1792년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을 상대로 싸운 혁명전쟁의 패배로 말미암아 실질적인 왕권의 정지상태가 되었고, 8월 9일 혁명적 코뮌(Commune)이 결성된 후 루이 16세와 그 일가를 의회로 호송하여 감금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 제 1共和政이 수립되고 국왕이 처형되므로 길었던 프랑스의 절대 왕정은 일막을 내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 III. 18세기 말 조선과 프랑스 頭髮樣式의 변화

#### 1. 조선의 頭髮樣式

##### (1) 髷髻禁制令 前의 頭髮樣式

髷髻禁制令 반포 전인 英祖 이전의 두발양식은 加髷를 사용하여 높게 틀어올린 高髷로 이는 삼국시대의 풍습이 조선으로 이어진 것이다. 조선 초기에는 그리 크지 않았으나, 왕권이 강화되고 정치적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점차 커지고 각종 장신구로 화려하게 치장하였다. 여기에 조선의 통치이념이자 禮와 체면을 중시하는 儒敎思想이 결합하면서 高髷는 곧 富와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이 되어, 세도가에

서는 과시의 수단으로 일반서민들은 상류층 모방의 풍조로 虛禮와 虛飾을 낭게 되었다.

이러한 사치는 暎에서 儀式때 하던 禮裝用 頭飾 뿐 아니라 班家 婦女 및 妓女, 평민에 이르기까지 그 크기와 꾸밈새의 다소 차이는 있을지언정 가능한 크고 풍성하게 치장하려 하였기 때문에 당시 거의 모든 두발양식에 가체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加髷를 사용한 두발양식은 모든 계층의 부녀자들이 常時 두발양식인 없은머리와 暎의 의례용인 大首, 巨頭味, 於由味 등이 있다.

없은머리는 일명 또야머리라 하며, 자기 머리카락 외에 다리를 여러 개 얹어 만든 高髷로 당시 폐단이 될 정도로 크고 풍성하게 만들었으며, <도 1>과 같이 "구름 같은 머리"라 표현될 정도로 풍성하였다. 이 없은머리는 큰 머리를 축소시킨 양식으로 반가 부녀들과 기녀들은 좋은 髷를 여러 개 사용하여 보기 좋게 엮고 끝에 빨간 색땀기를 매었으며, 천인들은 풀머리로 초라하게 하였다.<sup>13)</sup>



<도 1> 없은머리(高髷)

(한국의 복식 p. 468)

髷의 값이 열집 재산을 웃돌 정도로 비싸서 머리 한번 꾸미는데 7·8만냥이 소요되었다.<sup>14)</sup> 시 7·8만냥을 쌀로 계산하면, 맷쌀(粳米)이 1석에 48냥, 中米가 15냥, 햅쌀(新稻米) 1두에 6냥이므로 제일

13) 석주선, 「한국복식사」, 서울:보진재, 1978. pp.66-67

14)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之30 士小節 卷之6 服食

“富貴家 費錢至七八萬”

비싼 헝쌀로 환산하면 약 1,166석이 되므로<sup>15)</sup> 얼마나 엄청난 가격인지 짐작할 수 있고 그 사치의 정도를 알 수 있다.

때문에 高髻는 곧 부의 상징이 되었고, 크고 풍만한 머리모양이 아름다움으로 받아드러지는 사회풍조로 인해 너나할 것 없이 高髻를 꾸미고자 하여 가산을 탕진하는 경우도 생기고 髻로 인한 사기사건이 생기는 등 사회·경제적 병폐가 야기되었다.

뿐만아니라 한 부자집에서는 13세의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방에 들어오는 것을 보자 갑자기 일어나다 목이 부러져 죽은 경우<sup>16)</sup>도 있었으며, 가체를 한 큰 머리가 문설주를 받아 죽는 등 고계로 인해 목숨을 잃는 경우가 발생하자 마침내 왕명으로 금하기에 이르렀다.

禮裝用的 두발양식 중 髻髻禁制令에 언급된 것으로는 於由味와 巨頭味가 있다.

於由味는 於汝美, 어여머리 등이라고도 하며 검은 비단에 솜을 넣어 만든 어염족두리를 올려놓고 그 위에 다리(月子)를 넣어 땡은 머리를 좌우에서 돌려 고정시킨 다음 玉板과 땡잠으로 장식한 두발양식을 말한다. 정조 20년 기록에 '單髻'라는 기록으로 보아 금제령 전에는 여러 번 감아 올려 매우 큰 형태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

巨頭味는 髻頭美, 큰머리 등으로 불리우며, 이것은 어여머리 위에 다리(月子) 일곱꼭지를 땡아 얹어 양 끝을 둥글게 구부려 만든 거대한 Y髻를 덧붙인 형태로 갖가지 수식으로 우아하게 장식하였다. 따라서 소요되는 가체의 양과 무게가 상당하였기 때문에 정조 3년, 나무틀로 대치하도록 명령을 내렸

다.

이 두 양식은 예장용으로 궁에서나 반가 부녀자들이 하였고, 서민들도 혼례시에는 꾸밀 수 있었다.

왕비가 大禮服과 함께 착용하던 예장용 首飾인 大髻는 가장 크고 화려했던 궁양식의 두발양식이다. 「宣祖實錄」에 “翟衣에는 九翟冠을 있어야 하는데, 지금을 마련하기 어렵다... 首飾은 國俗에 따라 마련하였다.”<sup>17)</sup>는 기록으로 보는데, 왕비의 대례복인 翟衣에는 九翟冠을 사용했으나, 兩難을 거치면서 구하기 어렵자 수식을 國俗에 따라 花冠으로 대용한 것으로 보인다<sup>18)</sup>. 이 양식은 가체를 매우 많이 사용하여 긴머리를 어깨까지 말아올린 후 양 끝에 鳳비녀를 꽂으며, 뒷머리 가운데 머리를 두 갈래로 땡아 자주색 땡기를 놀이고 머리위 앞부분에 땡잠과 鳳비녀로 장식하<sup>19)</sup>고 Y髻를 얹은 모양으로 금제령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는 없다.

## (2) 髻髻禁制令 後의 頭髮樣式

成宗朝부터 시작된 두발양식의 문제는 마침내 英·正祖에 이르러 髻髻禁制令을 내리도록 만들었다.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 없은머리로 금제령에 의해 족두리로 대치되었는데 이것은 쉽게 개선되지 않고 한동안 混用되어 의례시 없은머리와 족두리를 쓴 後髻를 같이 한 것을 金弘道의 淡齋平生圖〈도 2〉에서 볼 수 있다.

簇頭髻는 高麗 후기 元에서 유입된 것으로 조선에 이르러 궁중양식으로 남아 冠帽라기 보다는 미적 장식품으로서 首飾이 되었다.<sup>20)</sup> 이것은 칩지머리

15) 최경순, “영·정조시대의 복식 변천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6. p.117

16) 李德懋, 전거서

“近有富家婦 年方十三 髻髻高重 其舅入室 婦遽起立 髻壓而頸骨折 修能殺人 嗚呼悲矣 ”

17) 「宣祖實錄」, 卷之 152, 35年 7月條

“翟衣之制 . . . 則必有九翟冠 然後方備其制 而今難卒備 五禮儀 有翟衣加首飾之文 首飾 既從國俗磨鍊 . . . ”

18) 김용문, “아시아의 수발양식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p.41

19) 안명숙, 김용서, 「한국복식사」, 서울:교문사, 1996. p.137

20) 백영자, 「한국의 복식」, 서울:경문사, 1993. p.295



〈도 2〉 혼용기의 엷은머리와 쪽두리 머리  
(한국의 미 vol. 21, p112)

위에 고정시켜 착용하였으며 高髻의 대용품으로 제시된 것이나 이 또한 사치의 도구가 되어 갖은 보화로 꾸밈에 따라 영조 39년 체계를 부활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칩지머리는 칩지를 가리마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땅아 위에 함께 묶어 쪽을 지은 머리형태이다.<sup>21)</sup>王妃는 鍍金한 鳳을, 內·外名部는 鍍金, 銀 또는 黑角 개구리 칩지를 사용하였으므로 칩지는 신분의 상하를 가르는 역할을 하였으며 화관이나 쪽두리를 고정시키는 구실도 하였다. 〈도 3〉은 칩지머리 차림의 국말 尹妃이다.



〈도 3〉 칩지머리  
(朝鮮王朝 宮中風俗研究)

쪽머리는 남자머리, 後髻라고도 하며 正祖의 금제령 후 엷은머리 대신으로 부녀자들의 평상시의 머리형태이다. 〈도 4〉과 같이 後髻는 가체를 드러 땅

은 머리를 뒤통수 아래 틀어 올려 비녀로 고정시킨 머리모양으로 각종 비녀와 뒤꽂이로 장식하였다.



〈도 4〉 後髻  
(한국의 미 vol. 20, p87)

高髻가 체계금제령에 의해 금해지고 後髻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가체 대용품인 쪽두리, 쪽두리를 고정하기 위한 칩지, 쪽머리의 마무리를 위한 비녀 등 머리 장신구에 변화가 생겼고, 이에 따라 두발양식도 쪽두리머리, 칩지머리, 쪽머리 등으로 종류가 다양해 졌음을 알 수 있다.

궁의 예장용 두발양식도 髻髻禁制令 후 형식과 종류의 변화는 없었으나 그 규모 면에서 많이 축소된 것을 볼 수 있다.

巨頭味는 가체로 꾸민 Y髻 대신 正祖 3년에 제시된 나무로 만든 髻인 띠구지로 꾸밈에 따라 가격과 무게면에서 많이 가벼워졌으며 띠구지머리라고도 불리우게 되었다. 거두미는 어유미와 함께 궁의 예장용으로 국말까지 지속되었다. 〈도 5〉은 띠구지머리를 하고있는 조선 말 궁녀의 사진이고, 〈도 6〉는 於由味와 圓衫을 입은 尹妃의 17세 때의 사진이다.



〈도 5〉 巨頭味  
(朝鮮王朝 宮中風俗研究)

21) 유희경, 『한국복식문화사』, 서울:교문사, 1995, p.281





〈도 6〉 於由味  
(朝鮮王朝 宮中風俗研究)

大首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국말까지 지속된 예장용 가발이다. 그러나 仁祖 代에 68년이 소요되었던 것이 英祖 이후로는 가체의 양 10냥 정도로 많이 축소된 것을 알 수 있다.<sup>22)</sup> 〈도 7〉는 國末 尹妃의 翟衣와 大首 차림의 모습이다.



〈도 7〉 大首  
(朝鮮王朝 宮中風俗研究)

英·正祖의 체계금제령은 반포 후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했으나, 한동안 없던 머리와 후계의 混用期를 거친 뒤 실학이 국가 전반적으로 퍼진 純祖 中葉에 後髻 양식이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 2. 프랑스의 두발양식

### (1) 大革命 前의 頭髮樣式 (Rcoco Style)

무절제한 쾌락과 사치스러운 귀족주의로 대변될 수 있는 로코코시대는 예술과 생활에 있어 자유분방하고 무절제하며 파격적인 것을 요구했으며 복식에 있어서도 이러한 風潮가 그대로 반영되었다. 따라서 두발양식도 복식사 상 전후무하리만큼 환상적이며 거대하고 화려하였다.

로코코 전기인 18세기 초는 바로크 양식에서 로코코로 변화하는 과도기로 두발양식에 있어서도 바로크풍의 잔류인 풍탕쥬(Fontanges)가 계속적으로 유행하였다

루이 14세의 사망 후 풍탕쥬는 점차 소멸되었으며 18세기 중엽까지는 비교적 단순한 스타일인 뽀빠듀르 스타일(Pompadour Style)이 유행하였다. 이 스타일은 루이 15세의 애첩인 마담 뽀빠듀르(Madame de Pompadour)의 머리모양에서 유래된 것으로, 머리카락을 부풀리지 않고 뒤로 붙여 빗어 넘긴 간단하고 품위있는 머리형<sup>23)</sup>을 의미한다. 〈도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스타일은 머리 전체에 파우더를 뿌려 조화, 리본 등으로 정교하게 장식하였다.



〈도 8〉 Pompadour Style  
(The Art of Dress, p.55)

22) 유송옥, 「조선왕조궁중의례복식」, 서울:수학사, 1991 pp. 183-318 참조

23) 이경옥 외2인, 「서양복식문화사」, 서울:형설출판사 ,p237

1760년경부터 두발양식에 커다란 변화가 일기 시작되었다. 타원형으로 높이 쌓아올린 머리에 갖가지 장식을 한 거대한 머리모양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당시 이러한 모양을 만드는 방법이 두가지 있었는데, 하나는 말털 쿠션이나 철사 받침 등을 머리 위에 얹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감싼 후 포마드로 고정시켜 마치 자신의 머리처럼 보이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머리는 짧게 자르고 가발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복잡한 머리모양은 대개 미용사(Hair dresser)들에 의해 만들어졌는데 그들은 거의 남자들이었으며 예술가로서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당시 파리에 약 1,200 여명의 미용사가 있었다고 한다.<sup>24)</sup> 그 중 가장 유명한 미용사로 르그로(Legros de Rumigny)를 들 수 있다. 그는 1769년에 미용학원인 “Académie de coiffures”을 세워 자신의 테크닉을 전수하였고, 실제 머리카락이나 그가 제작한 가발을 이용하여 디자인한 다양한 형태의 머리모양이 수록된 “프랑스 귀부인 미용의 기술(Art de coiffures des dames françaises)”을 저술하였다<sup>25)</sup>. 이 책은 1768년부터 1770년까지 여러 판으로 출간되었으며, 그 내용은 복사되어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게로 보내어져 그의 디자인이 유럽 전역에서도 유행되었다.<sup>26)</sup>

이러한 두발양식의 양상은 루이 16세 시대에 이르러 예술적이며 사치스러운 극치를 이루었다. 당시 Fashion Leader였던 마리 앙투아네트의 취향대로 머리의 크기는 점점 더 크고 화려해져 얼굴이 전신의 중심이 될 정도<sup>27)</sup>가 되어서 마차를 타는 경우 머리를 창 밖으로 내놓거나 루튼사이에 얼굴을 끼워야만 했다<도 9>. 게다가 그 위에 레이스, 리본, 조화, 깃털, 열매, 鱗甲(자라 등껍질), 보석 등 다양한 재료로 치장하였고 심지어 머리속에 꽃병을 물

고 생화를 꽂아 장식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머리에 정원, 범선, 과일바구니, 새, 동물원 등을 조형하고 그 특징에 적합한 이름을 붙였다<도 10>.



<도 9> 당시 거대한 머리를 풍자한 그림  
(Fashion in Hair, p.346.)



<도 10> 다양한 명칭의 두발양식  
(服食の世界史, p.313)

가발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머리모양을 만드는데 많은 돈, 시간 및 기술이 소요되므로 귀부인들은 대개 8-10일간을, 중류층 부인들은 약 3개월 가량을 빗지 않았으므로 머리 속에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24) 백영자 유희순,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경춘사, 1995 ,p.299

25) Boucher, 20,000 YEARES OF FASHION, Abrams, N.Y., 1987, p.306

26) Richard Corson, 구남옥 역, FASHION IN HAIR, Peter Owen Ltd., London, 1991, p332

27) Akiko Fukai, Rococo and Neoclassical clothing, REVOUTION IN FASHION 1715-1815, The Kyoto Costume Institute, 1989, p.111

나는 등 불결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따라서 그들은 황금이나 상아로 만든 긴 머리 굽는 도구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sup>28)</sup>

## (2) 大革命 後의 頭髮樣式 (Neoclassic, Empire Style)

타락하고 부패한 귀족주의에 대한 반발로 발생한 프랑스 혁명은 18세기 로코코양식의 화려한 두발양식을 하루아침에 축소시켰다.

마리 앙투아네트 처형 후 귀족·평민 모두 겸소한 차림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풍조가 머리모양에도 영향을 끼쳐 파우더를 뿌리지 않은 자연스럽게 곁이 진 수수한 두발이 보편화 되었다.

그 후 共和政이 성립되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공화제의 시원인 고대 그리스·로마 시대를 동경하는 마음이 생겼다. 따라서 복식과 머리모양에도 고대 그리스·로마 석상의 모습을 재현한 復古風의 머리모양이 등장하였는데, 그리스 시대처럼 뒤로 올려 붙이거나 짧게 커트한 머리에 긴 곁이나 뺨은 머리·쪽(낭자) 등 부분 가발, 빗, 밴드, 보석, 깃털, 체인, 왕관, 진주 등의 다양한 디테일로 머리를 장식하였다.<sup>29)</sup>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띠머리 커트(Titus cut)이다.

이 스타일은 로마황제 티투스(Titus)의 머리모양을 모방하여 뒷머리를 귀 위까지 짧게 깎아 올린 모양으로 <도 11>과 같으며 큰 인기를 끌며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이와 함께 머리를 높이 올려 묶고 나머지 머리카락은 물결치듯 내려오는 인판타 스타일(Infanta Style)<sup>30)</sup>과 곱슬곱슬한 카라카라 스타일(Caracalla Style)<sup>31)</sup>도 유행하였다. <도 12>는 카라카라 스타일을 한 당시 여성들의 초상화이고, <도 13>는 인판타 스타일의 모습이다.



<도 11> Titus cut  
(The Art of Dress, p.115)



<도 12> Caracalla Style  
(20,000 Years of Fashion, p.345)



<도 13> Infanta Style  
(The Art of Dress, p.113)

28) 이정옥 외 2인, 전개서, p 239

29) 상계서, p 463

30) Boucher, 전개서, p.341

31) 상계서

이렇듯 짧고 단순한 머리모양에 수반되어 다양한 스타일의 가발이 인기를 끌었다. 특히 1794-5년간 크게 유행하였는데, 주로 긴 머리형태에 색상이 매우 다양하였다. 그래서 이 시대의 여인들은 낮에는 짧은 자연모발을 하고 저녁에는 여러 가지 다른 색의 가발을 착용하였다.<sup>32)</sup>

나폴레옹 황제 즉위 후 엠파이어 스타일을 주도한 제 1 황후 조세핀에 의해 복식은 다소 화려해졌으나 두발양식은 떠뉘 스타일이 여전히 인기를 끌었다.

#### IV. 兩國 頭髮樣式의 類似性 分析

조선왕조와 프랑스의 두발양식 변화는 18세기 말에 발생한 조선의 체계금제령과 프랑스의 대혁명을 기준으로 확대와 축소라는 동일한 양상의 변화가 생긴 것을 볼 수 있다. 조선의 체계금제령과 프랑스의 대혁명 전·후 두발양식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대표적인 두발 모양을 도식하여 비교하여 보면 <표 3>과 같다.

변화 전에는 양국 모두 크고 과장된 형태의 두발양식이 아름다움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美意識은 당시 만연되었던 체면 주의와 사치 풍조로 말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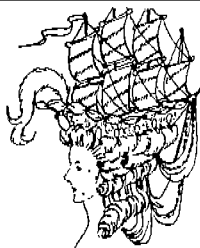

암아 가발과 각종 패드를 사용하여 머리모양을 인공적으로 크고 풍성하게 만들었으며, 여기에 화려한 장식을 가하여 신분과 부의 과시 수단으로 삼았다. 이러한 머리 모양을 꾸미는 데 드는 비용이 엄청났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파산하는 경우가 생겼으며 커다란 머리모양과 그 무게로 인해 생명을 잃는 등 사회적으로도 문제화되었다.

변화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금지령과 혁명이라는 과감하고 대외적인 형식에 의해 파생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변화전의 사치스럽고 방탕하기까지 했던 당시 상황과 이로 인해 나타난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문제들의 개선 필요성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 것에 있다.

아울러 여기에 조선의 實學思想이나 프랑스의 啓蒙主義와 같은 실용주의 사상들이 가세하면서 일반 시민들의 사고도 변하여 보다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스타일을 아름다움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따라서 이전에 크고 화려했던 두발형태도 대폭 축소, 간소화되면서 자기 머리카락만으로도 가능한 현실적인 스타일로 변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조선의 경우는 두발양식이 간소화되어 완전한 정착이 된 것은 鬢髻禁制令 반포 후 그 다음

<표 3> 조선과 프랑스의 두발양식 변화

국가 특징	조선		프랑스	
	鬢髻禁制令 (1756-1764, 1788)		大革命 (1789)	
변환점	전	후	전	후
왕 조	영·정조	순조 이후	루이 16세	공화정, 나폴레옹
頭 髮 樣 式				

32) 황의선, "근세 서양복식의 두식과 발형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p.67

<표 4> 兩國 頭髮樣式 變化의 類似性

특 징	變化 前	變化 後
크 기	확대	축소
형 태	과장되고 화려함	자연스러움
가발의 사용	다량의 가발이 소요됨	본인 머리카락 만으로도 가능
고계의 상징	身分, 富, 美	차별의 대상
가 치 관	사치, 체면 중시	실용주의 사상
미 의 식	擴大美, 奢侈美, 人工美	素朴美, 現實美, 自然美

<표 5> 兩國 頭髮樣式 變化의 相異性

특 징 \ 국 가	조 선	프 랑 스
변화 원인	髡髮禁制令	大革命
변화 주도	왕의 명령	시민의 개혁의지
변화의 흐름	수직적	수평적
변화 의지	타운적	자율적
사치풍조·미의식	변하지 않은 상태	반혁명적으로 인식
변화·정착 시기	다음왕조 : 純祖 중엽	즉각 변화

왕조인 純祖代에서 이루어졌던 것에 비해 프랑스의 경우에는 하루 아침에 생긴 변화라 할 정도로 혁명 후 즉각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이는 혁명이 가진 과단성에도 그 연유를 찾을 수 있으나, 당시 양국민의 가치관의 차이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조선의 경우 禁制令은 당시 일반인들이 갖고 있던 미의식이나 사치 풍조에 대한 사고가 변함없는 상태에서 王命이라는 수직적 개혁원칙이 사회 전반적으로 완전히 수용되기까지는 다소의 기간이 필요하였으며, 실학사상이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 농민을 비롯한 시민의식이 나타나기 시작한 19세기 초, 순조 중엽에서야 비로소 정착되었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에는 조선에 비해 빠른 정착을 가져왔는데, 이것은 시민혁명이라는 시민의식 개혁운동과 계몽사상에 맞추어 사치풍조는 반역적인 의미로 바뀌게 되었고 이에 따라 미의식 또한 검소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아름다움으로 인식된 것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의 髡髮禁制令과 프랑스 大革命 후 두발양식의 변화가 나타난 것에 대한 類似性과 相異性을

표로 정리하면 <표 4, 5>와 같다.

## V. 結 論

본 연구에서는 18세기 말 조선과 프랑스의 두발양식 변화의 유사성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특히 조선의 髡髮禁制令과 프랑스 大革命이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18세기 말 조선과 프랑스에서는 유사한 두발양식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것은 조선의 체계금제령과 프랑스의 대혁명으로 인해 파생된 것이었다. 조선의 髡髮禁制令은 英祖와 正祖에 의해 표명된 婦女 頭髮 奢侈에 대한 規制令으로 이는 당시 만연되었던 高髻 풍습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개선하고자 선포되었다. 프랑스의 대혁명은 모순된 신분제도와 왕가의 사치와 흥작으로 인한 국가 경제파탄에 의해 발생한 시민혁명으로 1세기 이상 지속되었던 절대왕정이 무너지고 공화정이 수립되었다.

2. 당시 조선에서 加髻를 사용한 두발양식의 종류

로는 大首, 巨頭味, 於由味, 엷은머리 등이 있으며 그 중 大首, 巨頭味, 於由味 등의 宮樣式은 금제령 전후로 가체 양의 변화가 있었을 뿐 국말까지 지속되었고, 세계금제령 전 가체를 많이 사용하여 크고 풍성하게 꾸민 엷은머리는 금제령 반포 후로는 後髷로 정착되었다. 프랑스는 복식사상 전무후무하리만큼 거대한 두발양식이 대혁명을 기준으로 짧은 띠뚜 스타일로 변화하였다.

3. 양국에서 나타난 두발양식 변화의 상관성을 살펴본 결과 크기 및 형태가 확대에서 축소라는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난 것과 당시 사치 풍조와 체면중시 사상에 의해 신분과 부의 과시용이었던 두발양식이 금제령과 혁명 후로는 실용주의 사상에 의해 소박한 모습으로 변했으며 이 전의 큰 머리형태는 처벌의 대상으로 변한 것 등의 유사성을 찾을 수 있었다. 상이한 점은 프랑스의 경우 하루아침에 일어난 급격한 변화라 할 정도로 혁명(1789) 전후의 짧은 기간동안 두발양식의 변화가 나타났으나, 조선의 경우 세계금제령반포(1756-1788) 후 그 다음대인 純祖 중엽에 와서야 비로소 정착이 된 점으로, 이것은 프랑스는 민중의 자각에 의한 의식변화에서 생긴 자율적인 변화인데 반해 조선은 사치 풍조와 美意識에 대한 일반인의 사고는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왕명에 의해 타율적·강제적인 변화를 요구했기 때문에 실학사상이 정착되어 의식이 바뀌기 전까지 다소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극동에 있는 조선과 유럽에 있는 프랑스를 비교한다는 것은 동시대에 발생한 두발양식의 변화라는 유사한 사건을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직접적인 연관성 찾는다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렇게 동·서양에 각각 다른 역사와 문화를 가진 두 나라에서 같은 시기에 두발양식의 비슷한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다. 따라서 앞으로 동·서양 문화교류의 답보를 되짚아 동일한 변화를 갖게 된 것에 대한 연관성을 찾

는데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 < 서적 >

- 朝鮮王朝實錄
- 李翼, 星湖僿說
-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 李德懋, 靑莊館全書
- 丹野 郁, 服飾の 世界史. 東京:白水社, 1985
- Aileen Ribeiro, The Art of Dress 1750~1820, Yale University Press, New Haven & London, 1995
- Blanch Payne, History of Fashion, Harper & Row, Publickers, Inc., N.Y., 1965
- Francois Boucher, 20,000 Years of Fashion, Abrams Inc., N.Y., 1987
- Francois Boucher, Histoire du Costume en Occident, Flammarion, Paris, 1996
- Jean Nunn, Fashion in Costume 1200 ~1980, The Herbert Press Ltd., London, 1995
- Richard Corson, Fashion in Hair, Peter Owen Ltd., London, 1991
- The Kyoto Costume Institute, Revolution in Fashion 1715-1815, Abbeville Press, N.Y., 1989
- F.뮌레, D.리세, 김응중 역, 프랑스혁명사, 서울: 일원서각, 1992
- \_\_\_\_\_, 세계사 연표, 서울: 역민사, 1989
- Michel Vovelle 외저, 프랑스혁명과 한국, 서울: 일월서각, 1991
- 금기숙, 조선복식미술, 서울:열화당, 1994
- 김동욱, 한국복식사연구, 서울: 아세아문화사, 1979
- 김영숙, 손경자, 한국복식사자료선집, 서울: 교

- 문사, 1982
- 다니엘 리비에르 저, 최갑수 역, 그림으로 보는 프랑스 역사, 서울: 까치글방, 1995
- 다니엘 모르네 저, 박광수 외2인 역, 프랑스혁명의 지적기원, 서울: 일월서각, 1995
- 백영자 유효순,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경춘사, 1995
- 백영자, 한국의 복식, 서울: 경춘사, 1993
- 석주선, 한국복식사, 서울: 보진재, 1992
- 손경자, 전통한복양식, 서울: 교문사, 1991
- 신상욱, 서양복식사, 서울: 수학사, 1989
- 안명숙, 김용서, 한국복식사, 서울: 교문사, 1996
- 유송욱, 조선왕조궁중의궤복식, 서울 : 수학사, 1991
- 유희경, 한국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1986
- 이기백, 한국사신론, 서울: 일조각, 1991
- 이상은, 조선왕조복식사론, 서울: 동방도서, 1992
- 이정옥 외2인,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형설출판사
- 임영자, 한국종교복식, 서울: 아세아문화사, 1990
- 정홍숙,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1996
- 조좌호, 세계문화사, 서울: 박영사, 1990
- 조효순, 한국복식풍속사연구, 서울: 일지사, 1988
- 한용희, 혁명의 이론과 역사, 서울: 대왕사, 1985
- 김혜원, 프랑스혁명기 복식연구, 「복식」 제 7호, 한국복식학회, 1983
- 노현숙, 풍속화를 통해 본 조선시대의 일반복식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 문혜경, 프랑스 혁명으로 인한 복식의 변화,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 박보영, 한국 복식문화사에 나타난 금제 고찰,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 박성실, 조선전기 출토복식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 박호영, 한국복식문화사에 나타난 금제 고찰,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 배정용, 조선조 중·후기 부녀두발의 양식고, 「아세아여성연구」, 숙명여대출판부
- 이희현, 6-18세기 서양복식의 변화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 임재영, 조선 후기 복식발달의 요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 전선정, 서구 여성의 머리형태 변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 최경순, 영·정조시대 복식 변천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 한승호, 혁명 발생 요인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 황의선, 근세 서양복식의 두식과 발형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 논 문 >

- 고미원, 한국 여성의 두식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 김두인, 서양여인의 머리형태와 머리장식에 관한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2
- 김용문, 아시아의 수발양식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 김은희, 여성의 머리형태와 두식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 김정옥, 영·정조시대 복식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0

ABSTRACT

A Study of Similarity between Hair Styles of Chosun and France at the End of Eighteenth Century

This study is a thesis based on the fact that at the end of eighteenth century, similar change in hair style appeared in Chosun and France which

are located very far, almost the opposite side of the earth. We can see that very exaggerated and big hair styles of those days in both countries became exceptionally reduced and changed to practical shapes through (an order prohibiting to make large hair style using wigs) in case of Chosun and through the France Revolution in case of France.

Outwardly, the above mentioned change may seem to be caused by such brave and outward convention as the prohibition order and the revolution. However, I think that more basic cause of such change from big and splendid hair styles of those days to simple styles was because of many people's sympathy with the necessity of improving various social and economical problems caused by the luxurious and even prodigal situation of those days before the change and additionally because of such pragmatic thought as

Positivism of Chosun and Illuminism of France.

In case of France, the change in hair style occurred for such a short period of time around the France Revolution (1789) that we can even that the change occurred in a day. However, in case of Chosun, such change became fixed at the time of King Suncho, the next dynasty to the one when the order prohibiting to make large hair style using wigs (1756-1788) was announced. In case of France, such change in hair style was mainly because of change of thought caused by people's self-consciousness. But in case of Chosun, under the situation where common people's way of thinking about sumptuous moods and beauty was not changed, unvoluntary and compulsory change was asked by the King's order, so a lot of time seemed to have been necessary for the change in hair style to become fixed as a nationwide common and general custom.